

길들의 지도는

계속된다:

광역에서

로컬로의 전환

심소미

독립 큐레이터

# 길들의 지도는 계속된다: 광역에서 로컬로의 전환

# 심소미 독립큐레이터

이 글은 도시공간과 공공미술의 언저리에서 진행되어 왔던 필자의 프로젝트 중 수도권 도시문화를 다룬 <2018 공공하는 예술: 환상벨트><sup>1</sup>를 환상喚想해 봄으로써, 중앙집권적 세계 안팎에서 감각된 로컬리티와 이를 경유해온 문화적 움직임에 대한 소회를 담고 있다. 본 글에서는 광역에서의 도시 네트워크에 질문하던 프로젝트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정주와 이주, 문화와 일상 사이를 오가며 로컬로부터 맞이한 전환의 경로를 검토함으로써, 동시대 문화에서 지역 문화 실천이 함의하는 바에 접근해본다.

## 광역을 돌아 지역을 만나다

“지역과 글로벌 스케일이 변증법적으로 묶어버려 전례 없이 알기 어렵게 된 자본주의의 작동방식 때문인가, 혹은 둘 다인가? 이젠 어떤 지도를 그려야하는가? 아마도 한국의 지역-특정적 미술 프로젝트 출현이 20년이 지난 지금, 그 지속은 이와 같은 물음을 경유해야하는 듯 보인다.”

— 신정훈, 2018<sup>2</sup>

<환상벨트>의 출판물에서 미술사학자 신정훈은 지역-특정적 미술 프로젝트와 경기도를 논의하는데 있어 “한국의 문제적 도시화”와의 영향 관계를 지목한 바 있다. 그는 90년에 등장한 최초의 도시주의 프로젝트인 <성남프로젝트><sup>3</sup>를 통해, 도시화에 대한 비판적 공론, 제도권 공공미술에 대한 저항, 주민미술에 가치를 두는 시각을 당시 도시주의 프로젝트의 새로운 전환으로 분석하였다. IMF로 인한 국가적 위기 후 2000년대 들어 신자유주의 질서가 사회의 지배적인 시스템이 되면서 이전까지 이항 대립적인 항들의 관계에도 변화가 생겼다. 경제적 질서에 편입되지 않았던 여러 가치가 자본의 대안 모델로 인정받게 되면서, 문화에 있어서도

1

<2018 공공하는 예술: 환상벨트>(주최/주관: 경기문화재단)에는 권혜원, 김남훈, 김승규, 김지은, 김태현, 라이스 브루잉 시스템즈 클럽, 무진형제, 믹스라이스, 안성석, 업셋프레스, 이해민선, 장석준, 정정엽, 줄리앙 코와네, 천대광, 파트타임스위트, 홍철기, 문화공간 섬자리, 여주두지, 오픈스페이스 블록스, C&G Artpartment(홍콩), Drawing Architecture Studio(베이징), OCAC(타이베이)가 참여했다.

2

신정훈, ‘성남프로젝트’(1998-1999) 다시 읽기: 지역-특정적 미술과 경기도, 『환상벨트』, 무빙북, 2019, p.10.

3

작가 김태현이 성남에서 동료 예술가들과 도모한 <성남프로젝트>(1998-1999)는 예술의 도시 실천적 개입을 추구한 선구적 작업으로, 이후 2000년대에 등장한 여러 도시 기반 활동에 영향을 미쳤다. 이와 관련한 출판물로서 『공간의 파괴와 생성/성남과 분당 사이』(문화과학사, 1998)가 있다.

‘사회적인 것’은 더 이상 대항의 차원에만 머물 수 없게 되었다. 문화가 지역마케팅을 위한 수단이 되고, 각종 커뮤니티아트와 공공미술, 문화재생 활동이 성과 중심적, 결과 중심으로 재편되는 문제도 생겼다. 자본집약적 도시개발의 광풍과 글로벌화로 인한 삶의 변화는 2000년 이후 시각언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갑작스럽게 노는 땅, 쌓여있고 덮여져 있는 물건들, 끝이 보이지 않는 아파트단지, 완공되기 전에 이미 유행이 지나버린 건물들, 자연과 인공물의 서툰 병치 등”<sup>4</sup> 신정훈이 묘사하듯 2000년대 이후 도시주의 작업에서 감지된 이 모호한 풍경은 90년대 양분화된 세계가 대립하던 장면과 다르게 파악하기 어려운 부재의 풍경으로 드러난다. 이는 자본의 폭력으로부터 무기력과 불확실함에 처한 공동체와 개인의 심리지리적 증상으로 접근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은 내가 〈환상벨트〉를 본격적으로 기획하기에 앞서 용인을 배경으로 하여 다룬 도시 리서치인 〈서브토피아〉<sup>2017</sup><sup>5</sup>와 평행하게 전개된 것이다. 용인과 수원의 경계에 있는 공공주택 분양관에서 전시된 본 리서치는 지정학적 권력에 의한 교외도시의 재편성과 시공간의 압축 속에서 탈각된 장소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러한 광역 도시공간의 지형도를 문화적 실천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해보고자 그 다음해에 기획한 〈환상벨트〉는 일 년간 세미나, 워크숍, 현장답사, 지역연구, 포럼과 전시로 운영한 공공미술 프로젝트이다. 23명(팀)의 참여 작가와 함께 한 프로젝트의 시작은 전시장소를 방문하는 것이 아닌, 고속버스를 타고 나대지 너머에 존재하는 지역의 현장을 투어하는 것으로 문을 열었다.

순환고속도로를 따라 광역의 환상 너머 지역으로 들어가 보려는 여정에서는 두 가지 축이 있었다. 하나는 도시경쟁의 논리로부터 소거되어가는 지역 문화를 새로운 배움의 장으로 삼은 것이고, 또 다른 축은 과정의 축적보다는 결과물로서 몸집이 커진 공공미술에 대한 반성적 접근이었다. 본 프로젝트를 제도권 공공미술에 대한 자기비판과 자기성찰의 계기로서 삼고, 동시대 장소와 예술 실천의 방향성을 재고해보고자 했다. 그러기위해서는 예술과 도시, 개인과 공동체, 지역과 광역,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사이에서의 간극과 접점을 다룬 대화의 장부터가 필수적이었다.

4

신정훈, ‘성남프로젝트’(1998-1999) 다시 읽기: 지역-특정적 미술과 경기도, 『환상벨트』, 무빙북, 2019, p.10.

5

〈2017 공공하는 예술〉(주최/주관: 경기문화재단)의 일환으로 기획된 〈서브토피아〉는 용인의 배경으로 하여 교외 도시공간에 대한 리서치를 7명의 예술가(김남훈, 김태현, 장석준, 이해민선, 줄리앙 코와네, 안성석, 홍철기)와 진행한 프로젝트이다. 이에 대한 후속 연구 출판물로는 동명의 제목인 『서브토피아』(무빙북, 2017)가 있다.

## 로컬로부터의 전환: 여강길로부터 소각로와 가마터를 잇기

그러나 한시적 문화행사의 기획자라는 스스로의 한계로부터 각 지역의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풀뿌리 문화의 지형도를 제대로 파악하기는 쉽지 않았다. 프로젝트의 주최·주관처였던 경기문화재단의 문예진흥팀이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흩어진 공론장에 참여할 기초문화재단 파악에 조력자가 되었다. 여러 접촉 끝에 부천, 성남, 여주의 기초문화재단이 협력했고, 각 로컬의 문화기관을 경유하여 지역의 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주체들을 예술가, 문화공간, 콜렉티브, 시민단체에 걸쳐 만날 수 있었다.<sup>6</sup> 다시 떠올려 봐도 당시의 협력 방식은 기관, 민간, 개인이 자발적으로 대화를 이어 나가며 만들어낸 상호 협력적 구조를 지난다. 이 연결의 구조는 사실상 매개자 주도로 이뤄진 우연적 네트워크로, 지역의 문화자원을 널리 퍼뜨리고자 하는 지역민의 마음 씀이 낯선 외부인의 대화를 거절하지 않은 덕에 열린 공론장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환상세미나>란 이름으로 개최된 일련의 행사에서 논의가 동일화된 힘의 자장에 갇히지 않기 위해 일반인 참여자도 모집하였으며, 그렇게 방만한 로컬 현장에서의 배움과 교류의 이야기는 네 번의 무가지의 형태로 출간하여 타 지역으로도 유포해보고자 했다.

각 지역 문화의 맥락과 실천의 관계에 따라 세미나의 주제를 달리했는데, 네 도시 중 특히나 인상 깊었던 지역은 여주였다.<sup>7</sup> 광역 도시민에게는 아울렛쇼핑몰로, 지자체가 홍보하는 향토 농업적 맥락 및 명성황후 생가란 지역마케팅용 프로그램에서 탈피해 지역인들이 도모하는 문화 현장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상투적 투여처럼 보였던 황포돛배를 타고 남한강을 유람한 경험은 이후 공론장에서 여주의 훼손된 여강길을 돌보는 시민단체의 이야기를 통해 상기되고, 이러한 생태계에 대한 위협은 생활문화 박물관인 여주두지가 사라져가는 마을에 남은 어르신들에게 귀 기울인 정성어린 흔적과도 중첩되었다. 개발로부터 훼손된 강길의 이야기가 몇몇 노인들만이 지키는 오래된 마을과 공명하고, 도시자본의 위협으로서 위태로워진 언덕길 위 성남 구도심의

6  
투어형 세미나 <환상세미나>에는 성남문화재단, 여주세종문화재단, 부천문화재단, 오픈스페이스 블록스, 여주두지, 노리단, 예술과도시사회 연구소가 협력하였다.

7  
네 회의 <환상세미나>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1회차 성남 <도시성과 공공예술의 지형도: 공공과 민간의 실천>(2018년 6월 15일, 성남아트센터), 2회차 여주 <문화자원의 동시대적 발굴: 역사·지역·마을>(2018년 8월 25일, 여주 명성황후생가 감고당 외), 3회차 부천 <폐산업시설의 문화적 재생>(2018년 10월 11일, 부천아트벙커 B39), 4회차 파주 <접경지역의 문화예술 새 지형도 '평화 공유지로서의 DMZ'>(2018년 11월 18일, 파주 캠프그리브스)

공공미술 이야기로 이어져 네 지역을 오가는 동안, 환상벨트의 순환형 동선(경계선)에서 멈춰있던 프로젝트의 시선은 아웃라인 내부의 지도를 그려나가듯 ‘길들의 지도’로 전환된 계기를 맞이했다. 그 길은 개발주의와 성장주의 사회에서 가속해온 수도권 순환도로와 교차되지 않는 곳에 남겨져 있었다. 느리고 비효율적이라 방치된 구불구불한 길은 지역의 문화를 이루고 있는 누적된 시간의 길이자, 축적된 삶의 길이기도 했다. 환상環狀형 네트워크가 가진 허상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로컬과의 만남 속에서 얻은 계기였다.

여강길의 물길이 한강으로 흘러들어가며 순환되어가듯, 그다음 부천에서의 세미나는 산업시설과 주거공간, 쓰레기와 문화, 소각로(혐오시설)와 가마터(문화현장) 사이에 떨어진 다리를 어떻게 이어나갈 수 있을지를 논의했고, 그 유무형의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바로 문화매개자이자 문화생산자임을 깨닫기도 했다. 지역성에 대한 논의가 지역이라는 장소에 국한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서로 연결되고 중첩된 흐름으로서 지역과 지역이 끊임없이 교차되어가는 가운데 로컬리티를 다른 방식으로 사고하는 계기들이 생성되기 때문이다. 조지는 작가구 맥스라이스가 전한 인도네시아 ‘자티왕이 아트팩토리’에서의 우정은 다음 세미나였던 파주에서 문화 불모지의 한계를 벗어나고자 공공미술로 소통한 무진형제, DMZ가 갖는 생태 공유지적 가치에 주목한 권범철 연구자 예술과도시사회연구소가 바라보는 공생 및 상생의 네트워크와도 중첩된 것이었다. 이 연속된 세미나에서 경험한 것은 자본의 점유로부터 점차 동일화되어가는 도시문화에서 감지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삶의 감각들이었다. 지역의 문화적 자원이 다른 사람들에게 재분배되는 일종의 감각적인 것의 나눔과 연결의 장이 일어난 것이다.

### 로컬리티의 재구성: 경계인들의 이동과 연결

프로젝트가 일 년이라는 한시적 기한을 다하면서, 〈환상벨트〉는 그 해 말 겨울 광화문 인근에 위치한 돈의문박물관마을에서의 전시를 마지막으로 종료되었다. 광역과 지역의 연결이라는 화두를 소란스럽게 띄우고서는, 네 도시에서 연결한 고리를 이후에 심화된 형태 혹은

확장된 네트워크로 지속하지 못한 아쉬움을 남기었다. 가파르게 새로운 프로젝트로 넘어가는 한국사회에서 일 년 단위는 다수의 문화행사가 가진 생애 주기이다. 정주와 연속성을 기대한다는 것이 삶만큼이나 불안정한 문화예술계 시스템에서 기댈 수 있는 것은 함께 길을 동행했던 사람들이다. 동료들의 행보가 조금씩 로컬을 이동하며 대안적 삶의 모델과 실천적 여정을 모색해나가는 소식은 나의 시선과 움직임을 알려지지 않은 길들의 지도로 안내한다. 수원 출신인 안성석 작가는 지역의 경계를 넘나드는 공동 육아에 참여하며 돌봄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었으며, 안산에서 이주민 여성을 만나 곡주를 빚어내었던 라이스 브루잉 시스터즈 클럽은 농사를 직접 지으며 쌓은 생태적 감각을 바탕으로, 부산과 베를린을 오가는 생태 기반의 교류를 확장해나가고 있다. 몇 해 전 이끼바위쿠르르를 결성한 조지은 작가는 글로벌 후기식민주의에 맞서는 남반구 예술 연대와 긴밀히 소통하며, 전 지구적 지배 권력에 저항하는 지역 문화로서 인도네시아의 풀뿌리 콜렉티브와의 교류를 지속 중이다. 60-70년대의 주택에서 사용된 모자이크타일을 찾아 한국의 과도기적 건축 양식을 조사하던 줄리앙 코와네는 타자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역 리서치를 계속해나갔다. 리서치가 이어지는 동안 작가가 서울의 용산, 신대방 등지에서 타일을 발견한 구도심 지역은 모두 재개발로 없어진 상태이다. 도시자본의 폭력적 개발로부터 사라져가는 서민양식의 징표는 작가의 조사에 의하면 서울 바깥의 지역(대구, 부산, 제주, 인천 등)에서 방치된 모습으로 찾아볼 수 있다. 대도시에서 지워진 문화적 자취는 아직 지역의 자원으로 생생하게 남아 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져가는 세계에 맞서 로컬로의 개입을 지속하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늘어나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아르코미술관 주제기획전 《일시적 개입 Local in Making》은 그러한 로컬에서의 지식과 경험을 우리 사회의 경계인들, 나아가 다양한 사회 주체와 공유하고 재분배할 또 하나의 계기이다.

〈환상벨트〉의 출판물에서 “새로운 것들이 계속 섞이면서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는 우리의 세계가 어떻게 통치되고 있는지”<sup>8</sup>에 대한 인식의 지도를 강조한 지리학자 임동근은 최근 한 강연에서 로컬리티의 재구성과 관련한 견해를 개진하였다. 경쟁 중심의 도시사회에서 무너진 공동체에 대한 기대를 인구소멸의 위기에 처한

지역에서 모색해볼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모빌리티가 불러일으킨 지역 소멸에 대한 반전의 시나리오로서 그는 “친목을 기반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지역을 찾으며 생성한 공동체”를 대안으로 언급하며 “계절에 따라 순환하는 철새”를 그 예로 들었다.<sup>9</sup> 대안적 삶의 방식을 찾아 지역문화에 관심을 두고, 이동과 접촉을 서슴지 않고 그 주변의 세계와 소통해가고자 하는 노력은 이번 《일시적 개입 Local in Making》에서 참여 작가들의 활동에서도 주요하게 드러난다. 최근의 지역문화에서 자원에 대한 관심은 기념비성, 대표성, 지역마케팅에서 탈피하여 다각화되고 있으며, 로컬의 정의를 답습하기보다는 동시대 사회문화적 맥락과의 관계로부터 다른 방식으로 재정의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전환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생태환경의 위기와 소멸되어가는 문화자원의 지속가능성을 대안적 실천의 형태로 도모하는 생명정치적 동력이 크게 작동한다. 젠더, 계급, 이데올로기, 전통, 지정학에 의한 로컬의 프레임에 속박되기보다는, 그러한 규범적 로컬리티를 유연한 사고와 실천으로부터 넓히면서 로컬에 대한 상상력을 펼치고자 하는 시도들이다. 지역의 자원을 다른 상상력으로 매개해나가는 문화생산자·매개자의 활동은 로컬리티를 상호연대적으로 수행해나가는 performed 것으로 지역의 경계와 한계에 맞선다. 이러한 로컬로의 개입과 전환은 자본주의가 점유하고 추상화시켜 온 도시문화와 불확실한 미래, 그리고 부재의 풍경에 저항하는 대안적 공동체로 나아가며, 가족·친구·이웃·동료·타인의 발걸음을 계속하여 엮어낼 것이다.

8

임동근, 인터뷰 〈수도권 공간재배치와 통치〉, 『환상벨트』, 무빙북, 2019, p.18.

9

임동근, 한국 도시의 미래 〈도시의 작동방식과 미래도시〉, 2022 수원공공예술프로젝트, 탐동 시민농장 실험목장, 2022년 09월 20일 오후 2-4시 강연 참조.

## 심소미

심소미는 서울과 파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독립큐레이터로, 도시공간과 예술 실천의 관계를 큐레토리얼 담론으로 재생산해오고 있다. 주요 기획으로 《미래가 그림나요?》, 《리얼-리얼시티》, 《2018 공공하는 예술: 환상벨트》 등이 있으며, 『큐레이팅 팬데믹』 및 『주변으로의 표류: 포스트 팬데믹 도시의 공공성 전환』을 발간했다.